

[對象 및 方法]

補償 filter는 collimator 下部에 附着이 되나 焦點-補償 filter間 距離를 變化시키면 필름에 撮影되는 補償 filter 像의 擴大率이 變化되는 것에 着眼하여 附着되는 補助具에 上下機構를 設置하였다. 이에 따라서 體型에 適合한 補償領域을 連續的으로 可變시킬 수 있었다.

[結果]

從來方式의 補償 filter에 比較하여 종격의 補償領域을 작게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補償領域 不適에 따르는 肺門部 等の artifact가 改善되었다. 또한 胸部 單純 X線寫眞에 補償 filter의 設置가 可能하게 되어 高精度의 positioning을 容易하게 하였다.

[結論]

이번의 改善으로 어느정도 問題點이 解決되었으나, 한편 材質에 起因되는 照射野램프의 透過性이 어두워서 補償領域을 確認하기 困難한 缺點이 있었다. 이에 對해서는 補償領域 確認用 透明시트를 製作하여 이에 對處하고 있다.

앞으로 側面斷層으로 應用도 考慮된다.

<20> 흉부 촬영조건 설정에 관한 실험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 방사선과

김 정 응

방사선검사에 있어서 흉부촬영은 기본적인 검사로서 전체 방사선검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흉부촬영은 해부학적 구조의 특성으로 고관전압촬영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신체 부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저관전압을 이용한 촬영기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어 진단가치가 충분한 흉부사진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사

실이다.

최근의 흉부촬영은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수단 및 기술이 연구개발되어 임상에 이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고감도, 고선예도를 실현하는 회토류계 증감지 및 필름을 사용하면 저관전압에서 고관전압으로 촬영기술이 발전되는 추세에 있어 저자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흉부질환의 진단능을 개선할 수 있는 촬영조건 설정에 관하여 실험한 바 있어 결과를 보고한다.

<21> 증감지-film계의 Boot-strap법의 새로운 시도

고려대학교 보건전문대학 방사선과

이인자 · 이승미

증감지-film계의 특성곡선을 구하는 방법은 Intensity scale법으로 거리법이 정확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충분한 농도 영역의 특성곡선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거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모든 시설에서 거리법을 응용할 수는 없다. 또 DSA, X선 cine 등과 같이 구조적으로 긴 거리를 잡을 수 없는 장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거리법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Boot-strap법이 있다. Boot-strap법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Kodak사에서 발표된 알루미늄 계단을 사용하는 방법에도 문제점이 있어 이를 타개하고 개선된 Boot-strap법을 시도한 바 있어 결과를 보고한다.

<22> 超迅速處理와 高感度 시스템의 利用에 따르는 被曝線量 輕減에 관한 연구

上溪白病院 放射線科
李載元 · 金溶植 · 尹 梃琿